

시공비교우위평가 71.2%, 선진화의 단초는 금융 경쟁력

- 해외건설 부진 원인은 수익성 저하 및 신인도 추락, 정부의 적극적 수주 지원 아쉬워 -

지금은 비록 극심한 불황에 허덕이고 있다 하더라도 건설인으로서의 자긍심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1960년대 이래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우리 건설업은 한편으로는 각종 사회 기반 시설의 건설을 통해 국가 고정 자본 형성의 물적 기반을 담당하였고, 총고용의 10%에 가까운 고용을 창출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해외 진출로 외화를 획득하고 국가의 이미지를 고양하는 업적을 남긴 바 있다. 이와 같은 자부심은 건설 CEO의 의식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났다.

SOC 건설과 고용 창출에 ‘자부심’

이번 조사에서 CEO들은 우리 건설업이 국가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한 부분으로서 사회간접자본(SOC)의 건설(57.4%), 고용 창출(30.7%), 해외 건설을 통한 외화 획득(11.9%)을 꼽고 있다. 이는 4년 전의 조사 결과와 비교해볼 때, 해외건설의 기여에 대한 인지도가 19.3%에서 11.9%로 줄어든 반면

건설 산업의 국가 발전에 대한 기여



고용 창출은 16.3%에서 30.7%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의 경기 침체 및 해외건설 침체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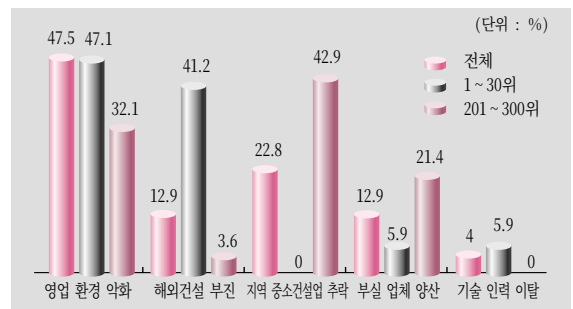
IMF 외환 위기의 명암

IMF 외환 위기는 우리나라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충격을 안겨준 일대 사건이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서 WTO 체제가 출범되면서 세계화를 외치기 시작했던 우리 경제는 1990년대 중반까지 시장 개방과 규제 완화, 즉 세계화와 시장화를 양대 축으로 하는 개혁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IMF 외환 위기는 그야말로 뼈와 살을 깎는 고통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우리에게 각인시켰고 우리 건설업은 지금 인고의 세월을 겪어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건설 CEO들은 IMF 위기에 대한 피해 의식에만 젖어 있는 것은 아니다. 비록 그 과정이 혹독하긴 하지만 지난 몇 년간의 고통스런 경험을 통해 실제적인 구조조정과 경쟁력 향상을 이룰 수 있다는 신념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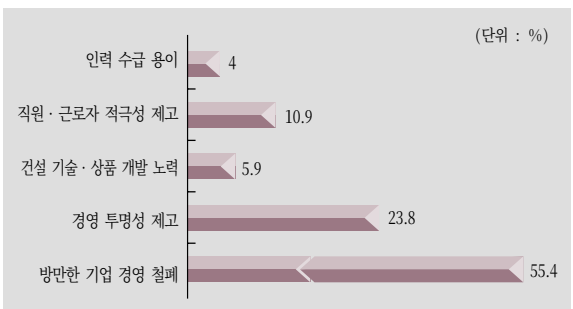
IMF 위기로부터 비롯

된 제 변화가 우리 건설업에 미친 부정적 측면을 묻는 설문에 대해서는 약 절반 정도가 영업 환경의 악화(47.5%)를 가장 중요하게 언급했으며 지역·중소 건설업 침체(22.8%), 페이퍼 컴퍼니·부실 업체 양산(12.9%), 해외 건설 부진(12.9%)이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응답은 업체의 규모 및 지역적 기반에 따라 일정한 편향을 보인다. 즉 시공 능력 순위 100위 이상의 중견 업체나 수도권 이외의 지방 업체는 지역·중소 건설업 침체와 페이퍼 컴퍼니·부실 업체 양산을 대형 업체에 비해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반면 대형 업체,

IMF 외환 위기의 부정적 측면



IMF 외환 위기의 긍정적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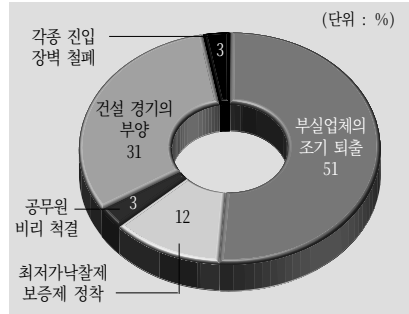
특히 시공 능력 순위 30위 이내의 업체에게는 해외건설 부진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IMF의 긍정적 측면으로는 방만한 기업 경영 철폐(55.4%), 경영 투명성 제고(23.8%), 직원·근로자의 적극성 고취(10.9%) 등이 꼽혔다. 결국 IMF 외환 위기는 기업 경영의 고삐를 당겨주는 뼈아픈 자성과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유발하는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이 응답에서의 눈에 띄는 편향성은 업체의 규모와 응답자인 CEO 자신의 속성에서 나타난다. 즉, 기업의 매출액이 높을수록, 창업 혹은 2세 경영인이 아닌 전문 경영인인 경우 경영의 투명성 제고 효과가 강조되는 경향을 보였다.

시공 부문 비교 우위 71.2%

21세기는 ‘국제적 차원의 무한경쟁 시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 건설업은 어떠한 상태에 이르러 있는가. 이에 대한 가장 좋은 지표는 역시 외국 건설업체와의 비교라고 할 수 있다. 1997년 3월 「건설광장」의 조사 결과는 한국 건설업체의 비교 우위는 주로 시공 분야에 있다(45.3%)였으며 비교 우위 분야가 없다는 응답은 37.7%로 나타난 바 있다. 4년여가 경과한 시점에서 이번 조사 결과는 다소 고무적으로 나타나 71.2%의 응답자가 시공

구조조정 완료를 위한 우선적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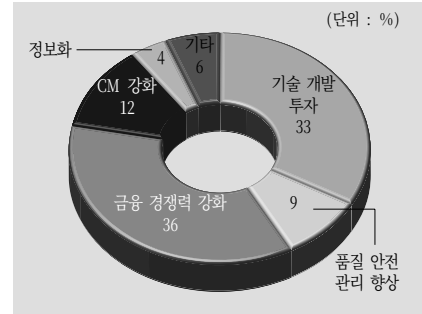
분야에 있어서 다소나마 외국에 대해 비교 우위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외에 설계, 감리, 기획 분야 등 시공 외적 분야와 정부 분야는 비교 우위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CM 등 건설업의 소프트 기술 능력이나 정보화 능력이 특히 강조되는 최근의 동향을 감안할 때, 아직 우리 건설업은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나라 해외 건설업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물어 보았다. 응답 결과를 보면 가장 큰 문제점은 낮은 수익성(33.7%)이며 과다한 미수금(23.8%), 낮은 신인도(20.8%), 금융조달 능력 부재(12.9%), 기술 낙후(5.9%)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부실 업체의 퇴출이 구조조정의 관건

한국 경제는 지난 40년 간의 고속 성장 시대를 마감하고 구조조정기를 거쳐 선진 경제 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같은 실정에서 한국 건설업은 다른 산업 부문과 마찬가지로 치열한 구조조정을 감내하고 있으며 산업의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진화를 위한 건설 기업의 과제



건설 CEO들은 구조조정을 조기 완료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부실 업체의 조기 퇴출(51.5%)과 건설 경기의 부양(30.7%), 최저가낙찰제·보증제 정착(11.9%)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적 요구와 함께 선진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건설 기업의 내부적인 과제로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건설업 CEO들은 금융 경쟁력 강화(36.6%), 기술 개발 투자(32.7%), CM 강화(11.9%), 품질·안전 관리 향상(8.9%), 정보화(4.0%) 등을 꼽고 있다. 이는 1997년의 설문 조사 결과와 대비되는데 당시 결과는 기술 개발이 37.7%로 가장 중요시되었으며 금융 경쟁력 강화는 17.9%, 품질·안전 관리 향상은 19.8%로 나타났다.

이 외에 우리 건설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해서는 선진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30.7%)와 자금 조달 능력의 제고(18.8%), 국내 건설업체 간 협력 체계 구축(18.8%), 신기술 개발(16.8%), 신속한 해외 정보 입수(13.9%) 등이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해 정부에 바라는 것은 적극적 외교를 통한 수주 지원(35.6%), 프로젝트 금융 제도 정비(23.8%), 국책은행의 해외 건설 보증(22.8%), 해외 정보 공급(9.9%), EDCF 즉 대외경제협력기금의 해외 건설 연계 확대(5.0%) 등을 꼽았다. 

해외건설의 문제점

